

불규칙활용

배주채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불규칙활용의 뜻

활용은 용언어간에 어미가 붙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사 '집다'의 어간 '집-'과 형용사 '밉다'의 어간 '밉-'이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 (2)와 같이 일정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형을 형성해야 한다.

- (1) 집고, 집지, 집네, 집어서, 집어요, 집으면, 집을까
- (2) 밉고, 밉지, 밉네, 미워서, 미워요, 미우면, 미울까

여기서 활용형의 형태는 어간의 형태와 어미의 형태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1)은 어간 '집-'과 어미 '-고, -지, -네, -어서, -어요, -으면, -을까' 등의 형태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2) 중에서 '밉고, 밉지, 밉네' 등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미워서, 미워요, 미우면, 미울까' 등은 예측되는 형태 '밉어서, 밉어요, 밉으면, 밉을까' 등과 다른 것이다. (2)와 같이 활용형의 형태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불규칙활용 또는 변칙활용이라 부른다. 반면에 (1)과 같이 활

용형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을 때는 규칙활용 또는 정칙활용이라 부른다.

2. 불규칙활용을 보는 다른 관점

(1)과 (2)를 비교하면 ‘땀-’은 일부 활용형에서 말음 ‘ㅂ’이 불규칙적으로 ‘우’로 바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땀다’를 ‘ㅂ’불규칙용언이라 부르고 ‘집다’는 ‘ㅂ’규칙용언이라 부른다. 그런데 ‘땀다’를 ‘우’불규칙용언이라 부를 가능성도 있다.

(3) 배우고, 배우지, 배우네, 배워서, 배워요, 배우면, 배울까

(4) 땀고, 땀지, 땀네, 땀워서, 땀워요, 땀우면, 땀울까

(4)에서 어간의 기본형을 ‘땀-’으로 보지 않고 ‘땀우-’라고 보면 ‘-고, -지, -네’ 등의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땀우-’에서 ‘땀-’으로 바뀐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말음 ‘우’가 ‘ㅂ’으로 바뀌지 않는 (3)의 ‘우’규칙용언 ‘배우다’에 비추어 ‘땀다’는 ‘우’불규칙용언이 된다.

(1)과 (2)의 비교를 통해 ‘땀다’를 ‘ㅂ’불규칙용언으로 보는 것과 (3)과 (4)의 비교를 통해 ‘우’불규칙용언으로 보는 것은 ‘땀다’의 기본형을 ‘땀-’으로 보느냐 ‘땀우-’로 보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처리가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땀-’을 기본형으로 보기 때문에 ‘땀다’를 ‘ㅂ’불규칙용언으로 보는 것이다.

활용형의 형태를 기술할 때 생성음운론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자연스러운 음운 규칙만 설정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생성음운론에서는 ‘땀-’이 ‘-어서, -으면’ 등의 어미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ㅂ→우’와 같은 음운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 으’ 등의 모음 앞에서 ‘ㅂ’이 ‘우’로 늘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뀌어야 할 음운론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성음운론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갈린다.

(5) ‘뱃-’의 기저형 : /miw-/

음운 규칙1 : w → p(ㅂ)(자음 앞에서)

음운 규칙2 : w + i(으) → u(우)

(6) ‘뱃-’의 기저형 : /뱃-/과 /미우-/

(5)의 견해는 어간의 기저형(기본형과 비슷한 개념) 말음을 ‘ㅂ’이 아닌 w로 설정한다. 말음 w는 ‘-고, -지, -네’와 같이 어미의 첫소리가 자음일 때 ‘ㅂ’으로 바뀐다고 본다(음운 규칙1). 또 ‘-으면, -을까, -으시’와 같이 어미의 첫소리가 매개모음 ‘으’일 때 말음 w는 ‘으’와 합쳐져 ‘우’가 된다고 기술한다(음운 규칙2). 이렇게 보면 종래의 ‘ㅂ’불규칙용언은 어간 말음이 w인 용언, 곧 w규칙용언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ㅂ’불규칙활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6)의 견해는 기저형을 둘로 잡는 것이 특징이다. 한 형태소에 대해 기저형을 둘 이상 인정하는 것은 주격조사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주격조사 ‘이/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기본형으로 잡고 모음 뒤에서 ‘이’가 ‘가’로 바뀐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생성음운론에서는 모음 뒤에서 ‘이’가 ‘가’로 바뀌는 음운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주격조사의 기저형은 ‘이’와 ‘가’ 둘 다라고 본다. 자음 뒤에서는 기저형 ‘이’가 쓰이고 모음 뒤에서는 기저형 ‘가’가 쓰인다고만 기술한다. ‘ㅂ’불규칙활용도 마찬가지로 기술한다. 자음 앞에서는 기저형 ‘뱃-’이 쓰이고 모음 앞에서는 기저형 ‘미우-’가 쓰인다고 기술한다. ‘뱃-고→뱃고’, ‘미우-어서→미워서’, ‘미우-으면→미우면’ 등과 같이 기술한다. 이렇게 보면 종래의 ‘ㅂ’불규칙용언은 어간의 기저형이 ‘ㅂ’으로 끝난 것과 ‘우’로 끝난 것 둘을 가진 용언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ㅂ’불규칙활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 학계에서는 생성음운론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ㅂ’불규칙용언의 경우 (5)보다는 (6)을 더 좋은 기술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불규칙활용은 학교 문법과 같이 전통적인 관점을 취할 때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3. 현대국어의 불규칙활용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불규칙활용은 다음과 같다.

(7) 어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 ‘스’불규칙 : 짓고, 지으면, 지어 cf. 벗고, 벗으면, 벗어
- ‘디’불규칙 : 듣고, 들으면, 들어 cf. 믿고, 믿으면, 믿어
- ‘비’불규칙 : 밟고, 밟으면, 밟아 cf. 집고, 집으면, 집어
- ‘르’불규칙 : 흐르고, 흐르면, 흘러 cf. 치르고, 치르면, 치러
- ‘우’불규칙 : 푸고, 푸면, 퍼 cf. 주고, 주면, 주어

(8) 어미가 불규칙적인 경우

- ‘여’불규칙 : 하고, 하면, 하여 cf. 가고, 가면, 가
- ‘러’불규칙 : 이르고, 이르면, 이르러(至) cf. 이르고, 이르면, 일러(早)
- ‘거라’불규칙 : 가고, 가면, 가, 가거라 cf. 사고, 사면, 사, 사라
- ‘너라’불규칙 : 오고, 오면, 와, 오너라 cf. 보고, 보면, 보아, 보아라

(9)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인 경우

- ‘흥’불규칙 : 파랏고, 파라면, 파래 cf. 좋고, 좋으면, 좋아

(7)에는 ‘주다’가 보충형 ‘달다(달라, 다오)’를 가지고 ‘않다’가 보충형 ‘말다(말자, 말아라)’를 가지는 현상이 더 있고 (8)에는 ‘오’불규칙활용(‘주어라’에 대한 ‘다오’의 경우)이 더 있다.

(7)에서 ‘지으면, 들으면’을 어간과 어미로 분석하면 ‘지-으면, 들-으면’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간을 ‘지-, 들-’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매개모음은 ‘피-으면→피면’, ‘놀-으면→놀면’에서 보듯이 말음이 모음이거나 ‘르’일 때는 탈락한다. ‘지-으면, 들-으면’에서는 매개모음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예외가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으면, 들-으면’과 같

이 분석하고 어간의 형태를 ‘지으-, 드르-(=들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8)에서 ‘하다’를 ‘여’불규칙용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어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어에서는 ‘하여, 하여라, 하였다’ 등은 쓰이지 않고 ‘해, 해라, 했다’ 등이 쓰이기 때문에 구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하다’는 ‘애’불규칙용언이라고 불러야 한다. 요즘은 문어에서도 ‘해, 해라, 했다’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그런데 ‘애’불규칙활용은 (8)이 아닌 (9)에 넣어야 한다. ‘해’의 모음 ‘애’는 ‘하’의 어간 말음 ‘아’와 어미 ‘-아’가 한 모음으로 축약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르러’는 학교 문법에서처럼 어간과 어미를 ‘이르-러’로 분석하는 것보다 ‘이를-어’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 학교 문법에서는 어간의 형태를 ‘이를’로 보면 ‘이르고, 이르면’ 등에서 어간 말음 ‘ㄹ’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르-러’로 분석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르-러’로 분석해도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즉 ‘ㄹ’이 끼어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를-어’로 분석하여 어간이 불규칙적인 (7)에 넣는 것이 더 낫다. 학교 문법에서 ‘홀러’를 ‘홀르-어’로 분석하는 것보다 균형을 맞출 수 있다.

(9)에서 ‘ㅎ’불규칙용언의 어간이 모음어미 ‘-아/어’ 등과 결합할 때 현행 맞춤법에서는 모음조화를 따라 ‘과래, 퍼래, 빨개, 빨게, 노래, 누래, 하애, 허애’ 등과 같이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 발음을 보나 옛말을 보나 모음조화와 관계없이 ‘애’로 끝난 형태가 옳다고 할 수 있다. 즉 ‘퍼래, 빨개, 누래, 허애’ 등이 옳다. 역시 ‘ㅎ’불규칙용언인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어떻다’ 등이 모음조화와 관계없이 ‘이래, 그래, 저래, 어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참고가 된다.

4. 중세국어의 불규칙활용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불규칙활용은 다음과 같다.

(10) 어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ㅅ’불규칙 : 짓고, 지스면, 지셔 cf. 벗고, 버스면, 버서

‘ㄷ’불규칙 : 들고, 드르면, 드리 cf. 믿고, 미드면, 미더

‘ㅂ’불규칙 : 덩고, 더분면, 더버 cf. 짐고, 지브면, 지버

‘시뜨다’류 : 시므고, 시므면, 심겨

‘있다’ : 잇고, 이시면, 이셔

(11) 어미가 불규칙적인 경우

‘야’불규칙 : 흐고, 흐면, 흐야 cf. 가고, 가면, 가

‘거’불규칙 : 앓고, 안즈면, 안자, 앓거다 cf. 받고, 바드면, 바다,
바다다

‘나’불규칙 : 오고, 오면, 와, 오나다 cf. 보고, 보면, 보아, 보아다

‘ㄱ→ㅇ’ 현상 : 알오, 알어늘 cf. 가고, 가거늘

‘ㄷ→ㄹ’ 현상 : 이라, 이러니, 이로다, 이라가(지정사) cf. 가다,
가더니, 가도다, 가다가

‘오→로’ 현상 : 이롬, 이론, 이로더(지정사) cf. 자봄, 자본, 자보더

(10)에는 ‘주다’가 보충형 ‘달라, 도라’를 가지는 현상이 더 있고 (11)에는 ‘두어 잇-’이 ‘뒷-’ 또는 ‘뚫-’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더 있다.

(10)에서 ‘ㅅ’불규칙활용과 ‘ㅂ’불규칙활용은 각각 ‘ㅅ’규칙활용과 ‘ㅂ’규칙활용으로 보는 것이 낫다. ‘ㅅ’, ‘ㅂ’이 자음 앞에서 각각 ‘ㅅ’, ‘ㅂ’으로 바뀌는 것은 중세국어에서 보편적인 음운 규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ㅍ’이 자음 앞에서 ‘ㅂ’으로 변하는 현상과 다를 바가 없다. 학교 문법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짚-, 덩-’ 등이 기본형이 된다.

‘시뜨다’(심다)류에는 ‘즈뜨다’(잠그다)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말음 ‘ㅇ, 으’가 떨어지고 ‘ㄱ’이 끼어들어 ‘씸-, 줌-’이 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활용 방식을 (12)~(14)에서도 볼 수 있다.

(12) ‘흐르다’류 : 흐르고, 흐르면, 흘러, 흘룸

(13) '다르다'류 : 다르고, 다르면, 달아, 달음

(14) '봣스다'류 : 봣스고, 봣스면, 봣아, 봣음

(12)는 '호르-/홀르-', (13)은 '다르-/달○-'(다르다), (14)는 '봣스-/봣○-'(부수다, 뺨다)과 같이 어간이 교체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12)-(14)를 규칙 용언으로 처리한다. 어간 말음절을 보면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규칙용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10)의 '시므다'류를 불규칙용언에 넣을 이유가 없다. 어간 말음절이 'ㅁ, ㅁ'인 용언은 모두 '시므다'류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 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규칙용언이 된다. 또 (12)와 (13)은 어간 말음절만 보아서는 활용 방식을 예측할 수 없다. 두 가지가 어간 말음절이 'ㄹ, ㄹ'로 똑같은데 활용 방식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르다'(고르다 均)와 '쌌르다'(빠르다)는 똑같이 어간이 'ㄹ'로 끝나지만 앞엿것은 (13)에 속하고 뒤엿것은 (12)에 속한다. 이것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12)와 (13) 중 하나가 규칙용언이라면 하나는 불규칙용언이 되어야 한다.

음운론적으로 보면 '호르-'나 '다르-'나 모음 앞에서 '홀르-, 달○-'으로 바뀔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시므다'류와 (12)-(14)는 모두 불규칙용언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들은 어간 말음이 모두 'ㅇ, ㅇ'이다. '알프-(아프다), 깃브-(기쁘다)'는 '알프고, 알프면, 알파', '깃브고, 깃브면, 깃버'와 같이 활용하는데 말음 'ㅇ, ㅇ'가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음운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규칙용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시므다'류와 (12)-(14)를 'ㅇ, ㅇ'불규칙용언으로 보는 것이 옳음을 알 수 있다.

(11)에서 'ㄱ→ㅇ' 현상은 음운 규칙으로 설정하여 불규칙활용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어미 첫소리 'ㄱ'은 'ㄹ'이나 하강이중모음 '의, 의, 애, 예, 외, 위' 등과 지정사(서술격조사)의 어간 '이-', 선어말어미 '-오리-' 뒤에서 예외 없이 'ㅇ'(후두유성마찰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ㄷ→ㄹ' 현상도 지정사의 어간 '이-', 선어말어미 '-오리-' 뒤에서 예외없이 일어나므로 음운 규칙으로 설정하여 불규칙활용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